

보도 일시	2022. 6. 15.(수) 15:00	배포 일시	2022. 6. 15.(수) 09:30
담당 부서	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	책임자	과 장 천지현 (02-2110-1270)
		담당자	사무관 강민규 (02-2110-1264)

## 방통위,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논의 본격화

- 전문가·업계·시민단체 등으로 협의체 구성,  
형식규제 완화 및 새로운 유형의 광고 도입방안 등 논의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한상혁, 이하 방통위)는 6월 15일(수) 「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」(이하 '협의체')를 출범하여 첫 논의를 시작한다.

협의체는 방송·광고·법률 전문가, 관련 업계,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,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·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·검토할 예정이다.

방통위는 지난 2월에 7가지 유형\*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힌바 있다.

\* 방송프로그램광고, 토막광고, 시보광고, 자막광고, 중간광고, 가상광고, 간접광고

아울러,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지원을 통한 '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'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.

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붙임. 「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」 위원 명단. 끝.

**붙임**

**「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」 위원 명단**

구 분	성 명	소속 및 직위
학 계 (2)	문 철 수	•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
	변 상 규	•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
방송사 유관 단체 (2)	조 성 동	• 방송협회 정책기획부장
	백 승 일	• 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처장
광고주 단체 (1)	곽 혁	• 광고주협회 사무총장
방송광고판매대행사 (1)	이 화 성	•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영업2국장
법률 전문가 (2)	김 태 오	• 창원대 법학과 교수
	안 정 호	•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
시민단체 (1)	정 지 연	• 소비자연맹 사무총장
정 부 (1)	천 지 현	•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장
연구기관(간사) (1)	강 준 석	•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
총 11명		